

# “정의·상식·원칙 무시尹정부, 역대 최악 정권”

### 이재명 대표, 5·18묘지·전남대 찾아 지지 호소 李 “개혁의 길로 민주당 이끈 광주, 힘 모아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광주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선대위원 등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 앞서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4·10 심판의 날, 오월정신으로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5·18 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한다 외치고 뒤돌아서면 곧바로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몰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처절한 투쟁

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다. 그래서 4·10 총선은 심판의 선거”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앙당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뒤 전남대 후문으로 이동해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정의·상식·원칙을 모두 무시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며 “총선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을 가장 민주당답게 개혁의 길로 이끌었던 광주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광주 공약으로 ▲모빌리티 AI 반도체 융합 실증도시 ▲서남권 최고 창업 클러스터 등을 약속했다.

최근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대표는 “큰 범주에서는 함께 하되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비례 정당은 비례 정당끼리 비교

하는 것이 맞다. 중요한 건 반드시 민주당이 1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흑식과 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지경으로 빠질 것”이라며 “그들이 입법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의 확실한 과반 의석을 만들어야 한다. 15석 확보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국민간담회’로 빗대며 “평소에도 안하던 간담회를 선거철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권선거·불법 부정선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경제·안보·외교·민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무능한 이 정권을 심판해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로 확실하게 보여줄 때”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정영정기자

## 광양경제청, ‘미래산업·해양관광 거점’ 비전 선포

### 개청 20주년...2030년까지 40조 투자 유치·일자리 8만개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경제허브 비전을 선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3층 대강당에서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공무원 등 총 1

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남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표창을 수여해 공로를 격려했다.

또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세리머니, 식수 행사 등도 진행됐다. 광양경제청은 개청 20주년 백서를 발간해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첨단 산업단지과 남해안 관광 거점을 조성해 전남과 경남의

경제·관광 핵심 지역으로 자리잡고 신성장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실현해 왔다.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쳐 57.08km의 규모로 2030년까지 16조 2천769억원을 투입해 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경도지구, 하동지구 등 6개 지구와 울촌산단, 대송산단 등 17개 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중 15개 단지 4876㎡가 개발 중이거나 완료돼 계획 대비 85.4%의 성과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화만인 광양항과 양호한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업을 중점 유치한 결과, 473개 기업 25조 8천억원의 투자를 실현했으며 5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투자 유치 750개사 40조원, 일자리 8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첨단·핵심 전략산업 유치 확대 ▲수요 대응 산업용지 공급 ▲글로벌 해양관광·정주도시 건설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4대 전략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년간 광양경제청은 철강·화학 등 기반산업과 이차전지·우주항공·수소·데이터 등 첨

단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관련 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며 “남해안 관광·문화산업벨트 구축과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 청년 인재 육성으로 광양만권이 세계 속의 산업·물류·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20년간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기자



21일 오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22대 총선 프리즘

### 이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가 21일 오후 영광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410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 출정에 나섰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의원, 민주당 광주 동남갑 정진욱 후보, 고성·보흥·장흥·강진 문금주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시작 이후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켜왔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지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으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여 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불출마를 선언

하고 선당후사를 결단한 박노원 전 예비후보도 참석, 의미를 더했다.

박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절실하게 뛰여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경륜과 무게감 있는 이재호 후보가 승리해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김원이 “전남권 의대 추진 약속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후보(목포)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전남권 의대 신설 인원(TO)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목포의대 유치가 전제된 공동의대 신설 추진에 찬성한다. 따라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의대에 역행하는 일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남도 차원의 대차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남도의 협의를 토대로 절차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확정하고 의대 정원(TO)을 배정한 후 전남도민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姜시장, 5·18 44주년 4대 과제 제시

###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헌법 전문 수록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사과로 이어지고 사과는 다시 망언으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다시 맞이한 5·18 44주년 앞에 4가지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제시한 4대 과제는 ▲5·18 가치의 헌법 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조

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정리 ▲5·18 관련 10개 조례 통합 ▲오월광주의 대한민국의대행사로 만드는 일 등이다.

강 시장은 “5·18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의 출발”이라며 “44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헌법 전문 수록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와 관련, 그는 “정부에 요청할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강기자